

진안 마을축제 시작 알려

11일부터 11월까지 60여개 마을서 연중 진행

진안군마을축제가 '마을과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진안'이라는 슬로건으로 60여개 마을에서 연중 진행된다. 12회를 맞은 진안군마을축제는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주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12회 진안군마을축제가 '마을과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진안'이라는 슬로건으로 60여개 마을에서 연중 진행된다.

록 마을회의를 통해 축제 날짜를 정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2월에는 11일 동향면 상노마을을 시작으로 성수면 반용마을, 마령면 원평마을, 동향면 대야마을, 부귀면 황금체험휴양마을을 총 5개 마을에서 정월대보름을 테마로 전통문화마을축제를 개최하며, 11월까지 마을 곳곳에서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전통문화마을축제, 브랜드육성마을축제, 지역거점축제, 문화기획축제, 학습교류축제로 나눠 지원하며 마을과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대야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대표하는 예거리 서식지와 수박 등을 주제로 우리 마을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풍성한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안성면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마을학교 운영기관 선정

3·1 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리는 체험, 실습 등 구성

무주군은 안성면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동수, 안성면 단지봉길 13)이 '2019 방과후마을학교'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019 방과후마을학교는 교육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성면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019 방과후마을학교를 통해 '청소년이 외치는'다시 한 번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3·1 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고귀한 나라사랑의 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체험, 실습, 견학 등으로 구성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수 관장은 "기존 방과후마을학교에 참여했었거나 안성면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프



무주군은 안성면청소년문화의집이 '2019 방과후마을학교'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그램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이 만족하고 지도자들이 열정을 발휘하는 2019 방과후마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고, 변화에 능동적인 안성면청소년문화의집은 지식과 함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청소년문화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댄스, 인터넷, 탁구, 포켓볼, 에어하키, 가족공예, 레고교실, 리본아트, 루미큐브대회, 청소년 상담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바이올린 교실', '수화교실'과 중·고등학교를 위한 '잡월드(직업체험)', '청소년 주간행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8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에 선정(주관 청소년활동진흥원)된 바 있으며 2015년과 2017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종합안전점검(주관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안성면청소년문화의집 ☎063-323-1582) /무주=전문선 기자

"초·중생 입학전 필수예방접종 확인 하세요"

진안군, 가정에 안내문 보내

진안군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생은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등 4종, 중학생은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또는 Td(디프테리아, 파상풍), HPV(자궁경부암) 2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보호자들은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진안군보건소는 입학 전 초·중생 접종 완료 여부를 위해 입학생 가정에 필수예방접종 안내문을 보냈다. 또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초·중학생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진안군의료원, 김흥기가정의학과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구세의원 등 4개소에서 시행한다. 군 예방접종 담당자는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의 경우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꼭 접종을 완료한 후 입학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 15일까지

장수군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적합 지역일자리 제공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직무역량 배양 및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 추진 사업이다. 올해 장수군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장수융복합 가공지원센터 운영지원',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담당관 육성',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지역활력일자리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예산 3억4000만원을 투입해 18명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참여자는 지역 정착 및 직무경험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월 180만 원부터 200만원까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장수군 군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의 적성과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장수군에 정착하고, 일자리 창출로 더욱 더 활기찬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부 사업과 모집인원 및 근무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http://www.jangsu.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설 연휴 구제역 방역 담당자 격려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태호)는 지난 4일 설 연휴에 구제역 방역 차단 예방 등을 위한 공동방제단 및 축산차량 거점소독 장소를 방문하여 방역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경기 안성 및 충북 충주에서 옮겨져 첫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장수군에서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비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1일 이후 장수군은 무진장축협과 공동으로 구제역 차단 등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 하고자 장계면 금곡리에 거점 소독시설 4개반(8명)과 공동방제단 4개반을 운영

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AI(조류독감) 예방을 위하여 매일 50~60 소규모 가금농가, 우제류 농가, 가든형 식당 등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3,500여 가금류 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또한 소, 돼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2월 1일 이후 소 5,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등 구제역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일제의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축산농가, 도축장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의회, 오늘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가 8일부터 21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집행부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광환 의원의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찬주 의원의 '무주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문은영 의원의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대표발의를 포함 9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할 계획이다. 집행부 업무보고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며,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지원 만전

무주군은 올해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에 총 5억3,000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들이 비용과 △농기주택 수리, △건축설계비, △고령 은퇴 도시민의 영농 및 생활 지원, △청장년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의 집을 운영한다.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집들이 비용은 지난해 이후 전입한 귀농·귀촌인 가구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농기주택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과 보일러교체, 지붕 및 부엌 개량을 위해 세대 당 500만원(자부담 50만원)이 지원된다. 건축설계비는 귀농·귀촌을 위해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세대 중 올해 건축신고가 됐거나 건축신고가 가능한 세대에 150만원(세대 당)을 지원하며 생계가 어려운 귀농귀촌인의 정착 및 영농창업을 위해 세대 당 500만원을 지원(자부담 50만 원)하는 청장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5년 이상 경과 제외, 만 51세 이상 지원 제외)도 추진한다. 고령 은퇴 도시민들의 원활한 영농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대 당 150만원을 지원(만 64세 이하 지원 제외)한다. 지원금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과 소모성 집기류 구입에 쓸 수 있다. 예비 귀농인에게는 한시적 거주공간인 귀농인의 집을 임대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